

청년문화 활성화 '군산청년뜰' 문 연다

15일 기념식·세미나 등 3부로 나눠 행사 진행

자립도시 군산시가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군산시 청년뜰'이 공식적으로 문을 연다.

오는 15일 문을 열게 되는 '군산시 청년뜰' 개소식은 1부 기념식을 시작으로 2부 창업세미나 3부 청년네트워킹 행사를 진행, 청년뜰 공간을 소개하고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

마련된다.

1부 기념식에는 청년, 관계 중앙부처와 기관 등이 참여해 청년뜰 개소를 축하하는 시간에 이어 청년들의 미래와 고민을 함께 나누는 관계기관과의 간담 시간을 갖는다.

2부 창업세미나에서는 지역의 창업가들을 소개하고 지역 창업정책이나 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군산시 청년협의체에서 마련한 3부 청년네트워킹행사는 청년들의 시각으로 준비한 이벤트와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다.

이번 행사에는 군산청년이나 창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하며 참가자를 온라인(<https://cafe.naver.com/gsyounstartup>)으로 사전접수를 받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청년뜰(☎171-1555)로 하면 된다.

한편 군산시 청년뜰은 시에서 복합

센터로 조성한 청년센터와 창업센터의 통합명칭으로, 군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지역 커뮤니티와 네트워크 활동, 취업 교육, 역량 개발, 진로 탐색 등을 지원한다.

또한 군산시 최초로 신설되는 창업 플랫폼으로서 예비창업가를 육성하고 창업가들을 위한 지원, 멘토링,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하며 건강한 창업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는 인프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폐소화기 배출

대형폐기물로 분류해 해당 3500원 배출수수료 기준 마련

군산시가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지역 주민들이 폐소화기 배출 시 겪던 불편함을 해소한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폐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배출가능하게 됨에 따라 군산시는 이달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배출근거를 마련하고 폭발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는 안전시책을 시행중

에 있다. 시는 개정된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폐소화기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분류해 해당 3500원의 통일된 배출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폐소화기 처리 방법은 규격에 상관

없이 대형폐기물 스티커(3500원)를 구매해 부착하고 지정된 장소에 배출 후 읍면지역은 직영(☎454-7905), 동지역은 서해환경(☎445-2943)에 신고를 하면 수거한다.

제왕군 자원순환과장은 "폐소화기를 생활폐기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편리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원광대, 제4회 원광미래혁신포럼

원광대학교(총장 박명수)는 일본 불교대학 다나가 노리히코 총장을 초청해 13일 교내 프라임관에서 제4회 원광미래혁신포럼을 개최한다.

국내의 대학의 성공적인 교육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대학 혁신을 위한 구성원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원광미래혁신포럼'은 4회를 맞이한 가운데 처음으로 외국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포럼을 진행한다.

이번 포럼은 일본 불교대학 다나가 노리히코 총장이 연사로 나서 불교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의 대학 교육개혁을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 4월 대학 구성원 참여 및 주도로 대내외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는 숙의형 대학경영 실천을 위한 '원광미래혁신위원회'를 발족한 원광대는 4월 첫 번째 포럼을 연 이후 지금까지 3차례의 포럼을 통해 대학의 위기를 진단하고, 다가오는 미래에 상응하는 대학발전 전략을 모색해 오고 있다.

특히 국내외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대학혁신 사례 공유를 위해 국내대학뿐만 아니라 외국대학의 사례까지 살펴봄으로써 대학 재정을 포함한 교육, 연구, 국제화 등 모든 분야를 '글로벌 개벽대학'의 이념에 맞춰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또한, 원광대 원광미래혁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미래혁신포럼을 열어 대학의 재디자인 전략을 구상하고,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다양한 주제의 분과별 논의를 통해 대학발전을 위한 혁신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교도소세트장 관광부문 대한민국상품대상

익산시는 익산교도소세트장이 (사)한국상품학회에서 시상하는 관광부문에서 대한민국상품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11일 밝혔다.

익산교도소세트장은 2005년 성당면의 폐교를 활용해 조성된 촬영 세트장으로 홀리데이를 시작으로 7번방의 선물, 신과 함께2 등의 영화와 아이리스, 시그널 등 국내·외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런닝맨 등 총 300여 편의 영상물이 촬영됐다.

최근에는 교도소세트장 외 소법

정 세트장을 추가 증축하고 죄수복, 교도관복 등을 입고 호송버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등 관광지, 인증샷 명소로 10월말 기준 12만4천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관광상품개발 등으로 500만 관광객이 익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상품학회는 1982년 창립되어 매년 우리나라의 우수한 상품을 발굴해 대한민국상품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지역 유·초·중·고 영양(교)사 17명을 대상으로 '우리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군산시,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 접수

군산시가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수급 불안 및 가격 변동 폭이 큰 노지 원예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전복도가 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 시기는 해당 품목에 따라 별도로 신청기간을 안내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양파, 마늘 2개 품목을 내달 13일까지 접수받는다. 지원 가능한 대상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소재 농지에 직접 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군산원예농협과 출하약정을 맺고 출하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범위는 품목당 1000㎡~1만㎡이

며, 사업 신청은 군산원예농협과 출하 계약을 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문영업 농산물유통과장은 "시가 추진하는 해당 사업이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자전거정책 실태 지적 및 정책추진 대안 제시

김충영 의원 5분 자유발언

최근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김충영 의원(익산 나선거구)이 5분 자유발언으로 익산시 자전거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자전거 전담부서 신설,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금강 옹파와 만경강 사수정 원터 자전거 무료대여 서비

스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으나, 여전히 원활하지 못한 자전거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시내 곳곳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고 인도와 자전거도로 겸용지역으로 이마저도 보수없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어 자전거 주행이 불가능한 실정에 이르렀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자전거도로 표시선이나 연계표시도 전혀 없다"고 말하면서 전수조사를 통한 시설개선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익산역에서 만경강 구간 자전거도로가 개설되고 시내 자전거도로와의 연결체계가 구축된다면 시민들의 여가활동은 물론 익산역과 연계하여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으며, 마무리 발언으로 "시내구간 자전거도로 개선을 통하여 시민들이 쉽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홈페이지 www.jjmaeil.com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